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 5500억 돌파..김·맥주 견인

2017년 수출액 전년 대비 14.1% 상승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김 등 수산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윤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5억1700만 달러(5529억9천원)로 2016년 4억5300만 달러 대비 64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 실적은 전년(2016년)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출 실적과 비교하면 6.5% 상승한 가운데 전국 평균 실적을 크게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에는 김·미역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 안정화를 기반으로 일본과 대미 시장 수출 물량이 크게 늘었고 한류 바람을 탄 주류(맥주)의 해외 인기도 상승, 인산물로 분류되는 '세틸' 수출단가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김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1억1300만 달러(1208억3000만 원)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맥주가 8600만 달러로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48% 상승하면서 김과 함께 수출 증가의 견인

차 역할을 했다.

반면 전남 지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유자차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7.4% 하락한 1900만 달러에 그쳤다.

파프리카도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8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국가별 실적은 일본 2억1200만 달러, 중국 9100만 달러, 미국 5500만 달러, 홍콩 4500만 달러, 대만 3600만 달러, 베트남 1000만 달러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영향,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대내외 수출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용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은퇴하고도 빚 못줄이는 한국”

한국은행, 노년층 소득대비 부채비율 훨씬 커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가계는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도 빚을 제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 안팎, 유럽은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 특징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 모두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년층들의 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라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특수한 형태도 노년층의 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임대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6.8%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게 발달돼 있지 않아 민간에서 실물자산 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 가계의 부채 조정이 보다 늦은 나이에에서 이뤄지는 요인도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50대 중반부터 가계부채를 축소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70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채상환 후 생활여력(총자산-총부채)+가처분소득)을 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이 특히 하위(1~2) 분위에 집중돼 있다. 축적된 실물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아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안정성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자산과 가계부채간 상관관계로 보면 금융자산은 적으면서 부채는 많은 가계가 노년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년층에서 금융자산 하위층(1~2분위)이 가진 가계부채는 전체 노년층 부채의 37% 수준으로 전 연령대 평균(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노년층의 부채 확대 및 실물자산 의존도 심화하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해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스티커를 부착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11월 출생아 '역대 최저' 함께출산율도 최저 전망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34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기존 최저 수치는 2016년 12월 2만7400명이었으나 11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 경신된 셈이다.

출생아 수는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15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24개월 연속해 감소 중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33만3000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16년 연간 출생아 수는 그해도 40만6200명이었으나.

연간 합계출산율은 12년 만에 최저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저출산율에 대응하는 국제 기준으로 활용된다.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이었으나,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1.06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17명과 비교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뉴시스

“저축銀 금리 더 받으려면 모바일 가입·특판 활용”

예금자보호, 원금+이자 5000만원...분산 가입해야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높다는 사실은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알고 있지만 저축은행 상품 간에도 금리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발품을 팔아 예·적금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한다면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를 소개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가지에 달하며, 각각의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금리

와 가입조건 등을 살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나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 상품을 수시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예·적금 가입 시 특판상품 판매 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판상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 놓고 판매하는 만큼 가입 시점에 없

을 수도 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금리를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SB톡톡'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지는 은행 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당 5000만원씩 분산해 예·적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서은홍 기자

선물세트에 김영란법 '안심스티커' 부착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환액이 인심됨에 따라 선물세트 '안심스티커' 도입을 통해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 부착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알뜰사과세트(8만원), 실속형 한우훈합세트(9만 9천원) 등 100여종의 선물세트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플로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다양한 선물세트 보강을 통해 설 명절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해당 스티커는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10만원으로 높은 개정 청탁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했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